

백석대 육군 학군단

209 학군단
소식지 3월호



백석대학교 209
육군 학생 군사 교육단

“학군단, 그 일원이 되다.”
백석대 육군 학군단 66기 증명사진 촬영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6기 후보생들 단체사진

백석대학교 육군학군단 66기 후보생들이 2026년 3월 6일 단복을 입고 증명사진을 찍었다. 66기 후보생 전원 개인 촬영과 단체 촬영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진정한 백석대 육군 학군단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백석대학교 육군학군단은 2005년 11월 3일 국방부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2007년 3월 20일에 정식 창설되었다. 또한 2007년 12월 14일 종합사열 우수학군단으로 선정되었고, 2008년 8월 30일 하계입영 훈련 최우수사격 및 부대 표창을 받았다. 이후로도 우수학군단에 여러 번 선정되며 2023년 12월에는 육군 최정예학군단에 선정되는 등 문무겸전을 갖춘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의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번에 입단하는 66기 후보생들은 앞서 승급한 65기 후보생들을 본받아 선배들로부터 쌓아온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스포츠건강관리전공 24학번 66기 서동주 후보생 소감

66기 증명사진 촬영을 통해 학군단 후보생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깊이 느꼈고,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자랑스러운 장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예비 후보생들 장교의 문을 두드리다.”

백석대 육군 학군단 동아리 홍보부스 운영



▲학군단 후보생들 홍보 중 예도사진



▲단장님과 함께 한 홍보 활동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5기, 66기 후보생들이 2026년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동아리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동아리 홍보부스 운영은 백석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하였고 주로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체험, 미니게임, 먹거리 판매 등 학생들에게 더욱 쉽게 동아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캠퍼스 내 중앙 운동장에 부스를 운영하였다. 예도 인원들을 통해 절도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 사진을 촬영하러 오는 학생들에게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백석대학교 운동장을 돌아다니며 나누어준 홍보물에는 간식거리와 육군 학군단 지원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둔 전단지들을 넣어두어 관심 있는 학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육군 학군단 부스에서는 65기 후보생들이 육군 학군단에 대하여 관심 있는 학우·지원하고자 하는 학우를 대상으로 육군 학군단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장교의 꿈을 안고 오는 학우, 관심이 있는 학우를 대상으로 학군단 입단 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 및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을 정확히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장교의 문을 두드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백석대 육군 학군단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경찰행정학전공 24학번 66기 박지민 후보생 소감

“학군단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군단을 알릴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특히 예도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홍보가 이루어져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훈련 환경, 더 강한 기본기” 백석대 육군 학군단 체력단련실 재단장



▲체력단련장 전경



▲새롭게 정비된 웨이트 기구와 원판 장비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체력단련실이 2026년 3월 19일 새롭게 정비되며 후보생들의 훈련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되었다. 이번 재단장을 통해 기존 공간은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되었고, 다양한 중량 장비와 웨이트 기구가 보강되어 체계적인 체력단련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정비된 체력단련실에는 바벨과 원판, 덤벨, 케틀벨 등 기초 근력 향상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졌다. 후보생들은 이를 활용해 개인별 훈련 수준에 맞는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력과 지구력, 기초 체력 전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체력은 장교 후보생에게 기본이 되는 요소다. 학군단 생활 전반에서 요구되는 강인한 체력과 자기관리 능력은 일회성 훈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꾸준하고 반복적인 단련을 통해 축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체력단련실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변화가 아니라 후보생들의 일상적인 훈련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체력단련실 재단장은 후보생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집중된 환경 속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앞으로도 예비 장교들에게 필요한 기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 스포츠경영전공 24학번 66기 김승현 후보생 소감

“체력단련실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운동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케이블 기구가 새로 들어오고 덤벨과 바벨도 교체되어 다양한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참여로 더 안전해진다.”

육군 안전모니터링단 6기 선발된 65기 홍용선 후보생



▲안전모니터링단 발대식



▲안전모니터링단 임명장

육군이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육군 안전모니터링단 6기 모집을 진행하였다. 이번 모집은 국민 참여를 통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5기 홍용선 후보생 역시 육군 안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였다.

2026년 육군 안전모니터링단은 약 40명을 선발하였다. 육군과 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작이나 SNS 운영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된다.

선발된 인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부대 안전진단 참여, 카드 뉴스·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 컨퍼런스와 세미나 등 주요 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임명장 수여, 우수 활동자 포상, 원고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육군 주요 행사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범죄수사학전공 23학번 65기 홍용선 후보생 소감

“안전모니터링단 6기에 선발된 65기 사관후보생 홍용선입니다.

저는 안전모니터링단에 선발되며 군 안전에 대한 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쉽게 지나쳤던 부분들도 이제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군 안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계 훈련을 통해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무사히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실제 군 부대를 방문하여 안전을 점검하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취업, 직업, 군 입대 상담이 어렵다면" 국격 페스티벌 - 군인성



▲육군 학군단&태권도 시범단 기념 촬영



▲65기 권성민, 홍용선 후보생의 MC 사진

백석대학교는 지난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교내 예루살렘 광장에서 국격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나라 사랑, 품격, 군격, 국격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와 취업,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전공 기반 1:1 맞춤형 병역 및 진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취업, 직업, 군 입대 관련 상담도 함께 운영되어 재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특히 육군 인사사령부, 육군 5군단, 육군 정보사, 충남/대전 병무청, 백석 ROTC 육군학생군사교육단이 참여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였다.

또한 2026년 4월 1일에는 백석대학교 운동장에서 육군 군악 의장대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과 함께 육군 홍보 나라사랑 콘서트가 열려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번 국격 페스티벌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범죄수사학전공 23학번 홍용선 후보생 소감

“국격페스티벌 ‘육군 홍보 나라사랑 콘서트’에서 MC를 맡은 65기 사관후보생 홍용선입니다. 이번 MC 경험은 저의 역량을 되돌아보고 재평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긴장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MC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전보다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교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은 제가 점차 장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치 있고, 당당하고, 재미있게” 백석대 육군 학군단 65, 66기 인성수련회 실시



▲ 인성수련회 단체사진



▲ 인성수련회 바비큐 파티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65기, 66기 후보생들은 2026년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인성 함양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하여 인성수련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인성수련회는 선·후배가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학군단 구성원으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수련회에서는 해변과 야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후보생들은 몸을 쓰는 레크레이션과 조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협동심과 소속감을 다졌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서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조별 식사와 장기자랑은 기수 간 거리감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식사 후 진행된 장기자랑은 선후배가 함께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다. 후보생들은 무대를 함께 즐기며 서로 가까워졌고, 더욱 단합되는 시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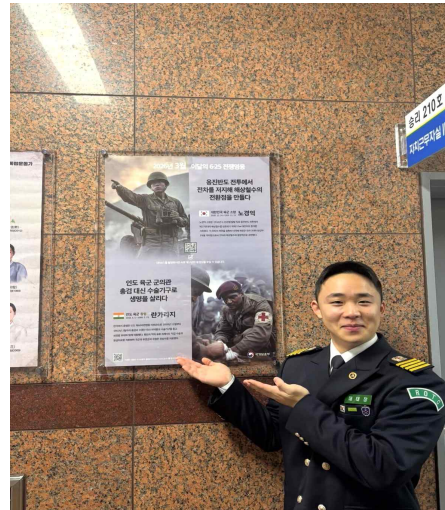
이번 인성수련회는 예비 장교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 정신과 책임 의식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앞으로도 후보생들이 바른 품성과 단단한 전우애를 갖춘 장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학전공 23학번 65기 권성민 후보생 소감

“65기와 66기가 함께한 이번 인성수련회는 선·후배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기자랑 무대와 여러 활동 속에서 후보생들은 각자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허울 없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억하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 전쟁영웅 기념 홍보 진행



▲학군단에 게시된 '2026년 4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홍보물 ▲65기 이종훈후보생의 이벤트 참여 사진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6·25전쟁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전쟁영웅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활동은 후보생들이 호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선배 전우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게시된 홍보물에는 '이달의 6·25 전쟁영웅'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전쟁 당시 활약한 인물들의 공적과 의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다 확장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후보생들과 학생들이 전쟁영웅의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홍보는 학군단 후보생들에게 군인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되새기게 하였으며, 전쟁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 영웅들의 삶은 오늘날 장교를 준비하는 후보생들에게도 책임감과 사명감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했다.

백석대학교 육군 학군단은 앞으로도 전쟁영웅과 호국보훈의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와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행정학과 23학번 65기 이종훈 소감

“뜻깊은 경험이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전쟁영웅분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